

인더스트리 특별강연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13:00~16:30 장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층 볼룸 1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소속)
13:00~13:40	Satellite Communications – A Way to Space	제희원 상무 (삼성전자)
13:40~14:20	협력자율주행을 위한 V2X (vehicle-to-everything) 통신	서한별 상무 (LG전자)
14:20~15:00	SK텔레콤의 5G 현황 및 B5G/6G 진화 방향	류탁기 인프라기술담당 (SK텔레콤)
15:00~15:10	Break	
15:10~15:50	THE ROAD TO 6G: FULL REALIZATION OF INDUSTRIAL METAVERSES	육영수 상무 (노키아)
15:50~16:30	NAVER AI's Research – Towards Strong and Robust Deep Models	윤상두 소장 (네이버 AI Lab)

강연 소개



Satellite Communications – A Way to Space

제희원 상무(삼성전자)

위성통신이 휴대용 기기에서 가능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근래에 들어서 일반 스마트폰, Wearable, IoT 기기에서까지 널리 활용 가능한 솔루션들이 출현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최근 위성통신 기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3GPP Rel.17 Non-Terrestrial Network의 NB-IoT 및 NR 표준 기반 위성통신 기술을 소개하고, 상용 가능 수준까지 구현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단말 모뎀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위성과 단말간의 열악한 link budget을 극복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위성의 frequency offset을 보상하기 위한 표준의 노력과 단말 알고리즘 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협력자율주행을 위한 V2X (vehicle-to-everything) 통신

서한별 상무(LG전자)

차량이 주변 차량, 도로 인프라, 보행자, 네트워크 서버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도로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는 한편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 기술이 협력자율주행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통신 단말로서, 차량은 고유한 서비스 요구 사항을 가지게 되며 그에 부합하는 통신 기술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본 강연에서는 협력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의 서비스 요구 사항과 주요 기술 요소를 살펴보고, 그 솔루션으로서의 표준화 진행 현황을 소개한다.

SK텔레콤의 5G 현황 및 B5G/6G 진화 방향

류탁기 인프라기술담당(SK텔레콤)

본 강연에서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이후 그동안 진행된 5G 기술 진화 및 네트워크/단말 고도화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Beyond 5G 및 6G 네트워크 진화와 관련된 SK텔레콤의 추진 현황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THE ROAD TO 6G: FULL REALIZATION OF INDUSTRIAL METAVERSES

육영수 상무(노키아)

향후 10년 기술의 발전은 혁신적인 디지털 공간, 즉 메타버스의 생성을 촉발할 것이며, 이 메타버스는 인간 증강과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의 융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메타버스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는 최적의 대용량 전송, 대규모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해야 하며, 6G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본 강연에서는 2030 메타버스 비전과 enabler로서 6G의 주요 기술, 특히, 인공 지능 기반 무선 접속(AI-AI), 네트워크 기반 센싱 등에 대한 노키아의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NAVER AI's Research – Towards Strong and Robust Deep Models

윤상두 소장(네이버 AI Lab)

본 강연에서는 네이버 AI Lab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특히 딥러닝 모델을 강력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